

#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2차년도 사업 추진

유망기술 발굴 및 사업화·기업 맞춤형 성장지원·특화 분야 클러스터 육성... 작년 매출액 103억 원 달성 등 많은 성과 도출

전북도와 군산시, 군산대는 '친환경 전기차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올해 63억 원 규모로 군산강소연구개발특구 2차년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지난 2020년 7월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돼 유망 공공 기술 발굴, 기술이전 사업화, 지역 특화성장 프로그램 등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를 중심으로 기업 성장과 창업, 연구소기업을 육성했다.

지난 한 해 연구소 기업 9개사 설립,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사업 15개사 선정, 기술이전 및 출자 27건, 혁신성장 IR 경진대회 2개사 수상, 일자리 창출 103명, 매출액 103억 원 달성 등 1차년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2차년도 사업에 앞서 전북도는 시행계획 및 연차평가 심의를 위한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으며, 23일 2022년 군산강소연구개발특구 1차 심의위

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21년 성과보고와 '22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

2차년도에는 ▲특화분야 수요기반 유망기술 발굴 및 기술사업화, ▲기술창업 및 기업 단계별 맞춤형 성장지원, ▲지역특화분야 클러스터 육성지원을 3대 중점 전략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특화 기업 성장지원에 21.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역

특화 분야 관련 기업의 역량 강화 및 애로 해결 등 체계적인 지원으로 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전대식 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가 침체된 군산의 지역경제와 산업이 되살아나는 원동력이 돼 그간 구축된 자동차 산업을 기반으로 친환경 미래형 자동차 산업 육성 추진 등으로 전북 대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전북도, 국가 생태탐방로 조성 '박차'

2024년 완공목표 97억 투자... 입실·고창·완주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완주 경천저수지 산수인' 올해 신규 대상으로 선정...우수생태자원 육성

전북도가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97억 원을 투입해 입실, 고창, 완주 등 3개 지역에 '국가 생태탐방로'를 조성한다고 23일 밝혔다.

'국가 생태탐방로'는 아름다운 자연 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을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찾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보 중심의 길이다.

'국가급으로 인증'을 받은 탐방로로 환경부의 공모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도는 도내 우수한 자연·문화·역사 자원과 연계가 가능하고, 생태적

가치가 있는 지역을 발굴해 공모에 적극 대응해 왔다.

먼저, 지난 2017년에 선정된 입실 옥정호 물문화 물레길 국가 생태탐방로는 오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50억 원을 투입, 7.3km 구간을 조성하고 있다.

향후에는 조성된 물레길과 연계해 옥정호를 순환할 수 있는 국가 생태탐방로 18km를 추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입실 옥정호 물안개 길과 연계해 국가 생태탐방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생태탐방로라는 브랜드를 부

각하고, 국내 최고의 명품 국가 생태탐방로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2021년에 선정된 고창 인천강병마위 국가 생태탐방로는 국비를 포함한 1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병마위와 인천강 하구습지를 연결하는 탐방로 6km와 지질테마 학습장, 안내·편의 시설 등을 만들 예정이며 사업은 오는 2023년에 완료된다.

인천강 병마위는 지난 2017년 9월 전북 서해안권 국가지질공원으로 선정되고, 현재 세계지질공원 인증 절차에 있는 고창군의 지질명소이기도 하다.

또한, 2022년 신규대상지로 선정된 완주군 경천저수지 산수인 국가 생태탐방로는 전국 23개 지역 중 환경부 심사위원의 서면·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됨으로써 자연 자원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경천저수지 국가 생태탐방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에 걸쳐 총 29억 원이 투입돼 생태습지(120,000㎡) 내 총길이 4.7km 조성된다.

유호숙 도 환경복지국장은 "누구나 쉽게 전북의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생태탐방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국가 생태탐방로가 생태적 가치증진과 함께 지역문화와 집복한 자연친화적인 테마 중심의 생태관광 자원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비 108억 원을 투입해 총 7개소의 국가 생태탐방로를 조성한 바 있다. /유호상 기자

# 도, 인권강사 양성 과정 교육생 모집

내달 15일까지 도민 20여명

전북도가 도내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인권강사로서 활동할 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2022년 인권강사양성과정 신규 교육생을 오는 3월 1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교육 대상은 인권에 관심이 있는 도민으로서 인권교육 및 인권교육 연구 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사회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다.

특히 올해는 공공기관 등 다양한 인권교육 수요처에 대응하고자 국가인권위 위촉강사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자, 공무원이나 교사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도내 대학 재학생 중 인권교육과 인권교육 연구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신청기간은 3월 15일까지이며,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 누리집 고시·공고나 인권담당관실(280-3154)로 문의하면 된다.

교육생 선발은 인권에 대한 이해도, 인권활동 경력, 활동분야 등을 고려해 서류심사를 통해 3월말 개별통지할 계획이다.

교육과정은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진행된다.

기초과정은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의 이해부터 각론까지 4월 5일부터 한 달간 주 2회(화, 목) 총 50시간으로 진행된다.

심화과정은 기초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5월 중에 진행된다.

시혜·실무중심의 교육프로그램 구성과 강의 시연 및 전문가 피드백 등 현장 활동기로서 준비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한다.

박연화 도 인권협력팀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역량있는 인권강사를 양성하는데 중점을 뒀고, 보다 많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선발 기준을 다양화했다.며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도내 사회복지시설 내 인권침해사례와 직장 내 괴롭힘 등을 해소하기 위해 양성된 인권강사를 적극 활용, '신뢰'와 존중으로 포용하는 인권도시 전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소주병에 붙여진 대선 투표참여 홍보 스티커

전북선관위가 하이트진로와 협업으로 소주병에 투표참여 홍보 라벨을 부착해 유권자들의 제20대 대통령선거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에 한해 3월 9일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으며, 일반유권자는 기존과 같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유호상 기자

# 공공기술사업화·미래 신산업 육성 103억 투입

전북특구본부, '올 특구육성사업' 본격... 오늘 온라인 설명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본부장 조용철 이하 전북특구본부)는 전북특구의 기술이전·창업 활성화 및 기술혁신 기업육성을 위해 2022년 전북특구 육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전북특구 육성사업은 총 103억 원으로 기술발굴 및 연계유망기술 발굴, 이진·출자, 기술사업화 역량강화(상용화 과제 지원), 기술창업 및 성장지원(창업, 투자유치, 판로개척 등) 등 공공기술사업화 전주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추진될 예정이다.

유망기술과 수요기업 발굴 매칭을 통해 '기술이전' 및 '연구소기업 설립'을 지원하고, 공공기술 이진·출자기업의 제품개발을 위해 기술사업화(R&BD) 과제를 57억 원 규모로 지원

한다.

또한 특구내 대학을 이노폴리스캠퍼스라 지정해 창업을 가속화하고 액셀러레이터, VC 등과 협력해 투자유치도 적극 지원한다.

특히 올해에는 탄소중립, 디지털 뉴딜 등 전북 미래신산업 분야를 적극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친환경 디지털 분야 사업화 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개발, 기술도입,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는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3억 원)하고, 신산업 아이템에 부합하는 수요기술을 특구내에서 폭넓게 연계해 기술창업, 기술이전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화 기업의 주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화 지원체계를 고도화하고, 기업과의 소통도 강화할

계획이다.

사업화 제품인 양산체계에서 필요한 품질인증, 기술표준화 등을 지원하는 '실용화 검증' 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전북특구 직원들이 기업을 직접 방문해 수요를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찾아 연계하는 현장중심 기업소통 프로그램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2022년 전북특구 육성사업 설명회는 코로나 확산 방지 차원에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오는 25일부터 시청이 가능하다.

세부내용 및 신청·접수 방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및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www.inopol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구 담당자(063-905-9752~5)에게 문의하면 된다. /유호상 기자

# 자원봉사는 어둠 밝히는 '등불'

전북도자원봉사센터, 소외계층 등 맞춤형 지원 실천 100만 자원봉사자 확산 추진 등 코로나 19 극복 '시동'

전북도자원봉사센터는 코로나19로 확산되고 있는 지역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자원봉사활동 및 나눔실천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전북도와 전북도자원봉사센터에 따르면 어려운 코로나19상황에 방역활동, 꾸러미 나눔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으며, 사각지대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신속한 상주택배, 생활, 의료 등 긴급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자원봉사활동을 사회적 가치활동으로 인정하고 보상하고자 도내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전북사랑 마일리지 통합관리시스템'을 시행해 도내 공공시설 및 가맹점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인정·보상 제도를 마련했다.

(사)전북도자원봉사센터는 14개 시·군 자원봉사센터와 58만 자원봉사자와 함께, 행복한 전북도를 위한 사회적 나눔 확산에 힘을 다할 것이며, 다양한 자원과 재능인력 확보에 힘을 기울여 전북도가 자원봉사터 더 행복해 질 수 있도록 협력할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오상 전북도자원봉사센터장은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과 필요성, 가치에 대한 인식이 더욱 제고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희망을 나누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한 상황에서 그간 경험을 바탕으로 상주택배, 생활, 의료 등 긴급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방역상황의 엄중함과 인력부족 등 다양하고 전문화된 재능기부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필요한 시기이다"며 "전 연령층의 적극적인 관심과 나눔실천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자원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시민은 전북도자원봉사센터(227-1365) 및 시·군 자원봉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유호상 기자

# 취약계층에 자가진단키트 무상 지원

내달부터 어린이집 교사·임산부·노인 외 복지시설, 기초수급자 등

전북도가 방역 수준이 낮고 집단생활로 감염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 27만여 명에게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는 취약계층의 구매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선제검사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재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일일 확진자가 4,000명대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특히, 백신접종의 사각지대인 어린이 확진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어린이집 원생 등 10세 미만 4,863명이 확진되는 등 10세 이하에 오미크론 변이 등으로 감염 속도가 빨라지면서 복지시설 등의 집단감염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에, 전북도는 2월 4주차부터 방역 수준이 낮은 어린이집(1,115개소) 원아와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93,000여 명에게 자가진단키트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3월부터는 어린이집 교사, 임산부, 노인 외 복지시설(장애인, 아동 정신건강증진, 노숙인 등),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등 177,000여 명에게 지원한다.

강영석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자가진단키트 지원이 방역 취약계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최근 감염이 확산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모임과 행사 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방역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멈춰라"

전주시의회, 촉구 결의

전주시의회는 23일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3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박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군합도에 이어 강계동원의 역사 현장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겠다는 것은 인류 보편적 가치가 있는 유산들을 발굴, 보호 및 보존하고자 하는 1972년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협약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

고 밝혔다.

또 "2015년 군합도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할 당시 '강계동원의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알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여태껏 지키지 않고 있다"며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중지가 더불어 유네스코 권고와 스스로의 약속에 따라 군합도 희생자들을 기리는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강동화 의장은 "아무리 고치고 조작하더라도 진실은 감추어지지 않는다"이라며 "인류와 일본의 미래세대를 위해서 역사왜곡을 그만두고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윤성기자

# 군산시의회 "군산대 총장 조속 임명"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군산대학교 총장 공백기간이 길어지면 대학 발전의 저해와 학내 구성원들의 갈등까지 야기될 수 있다며 군산대 총장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다.

군산이 되고 있는 군산대학교가 지역 사회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루속히 군산대학교 총장을 임명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군산=남원봉 기자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군산대학교는 입학처장이 총장 직무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 신학기를 준비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에 총장의 직무까지 감당하다 보니 학사 일정에 많은 어려움과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이다"고 덧붙였다.

군산시의회는 "비려한 엄중한 시기에 총장의 공백 상태가 길어지면 대학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그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과 지역 사회가 짊어질 수 있다"며 "군산시민들의 자부심인 동시에 지역사회 경제의

남원시장 출마 예정인 무소속 오철기 씨가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남원 춘향호텔에서 '오철기 박사의 남원경제'를 출간하고 사인회 형식으로 출간기념회를 갖는다.

오 예비후보는 "이 책이 지역의 지도자들과 오피니언 리더들이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다. 지역발전에 대한 고민을 같이 나누는 기록이 되기를 바란다"고 출간 소감을 밝혔다. /남원=김기우 기자

오철기 박사의 26일 출판기념회

남원시장 출마 예정인 무소속 오철기 씨가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남원 춘향호텔에서 '오철기 박사의 남원경제'를 출간하고 사인회 형식으로 출간기념회를 갖는다.

오 예비후보는 "이 책이 지역의 지도자들과 오피니언 리더들이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다. 지역발전에 대한 고민을 같이 나누는 기록이 되기를 바란다"고 출간 소감을 밝혔다. /남원=김기우 기자

오 예비후보는 "이 책이 지역의 지도자들과 오피니언 리더들이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다. 지역발전에 대한 고민을 같이 나누는 기록이 되기를 바란다"고 출간 소감을 밝혔다. /남원=김기우 기자